호 반 두 드 림 도 서 관

#경기도 용인시 #시설공사비 지원

입주민들의 노력이 담긴 호반두드림도서관

호반두드림도서관은 호반아파트 단지 내 있는 작은도서관으로, 아파트 입주 초기에 세워졌습니다.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입주민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 호반두드림도서관이라는 이름 역시도 입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짓게 되었습니다.

호반두드림도서관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작은도서관으로서 지역 내 독서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.

긴급지원119와 함께한 호반두드림도서관의 2017년은 어떠했나요?

2017년에 있었던 가장 큰 일은 도서관 마루시공 공사이지요. 공사 전에는 필요성을 느끼기는 했지만 공사를 하려고 하니 덜컥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. 또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이용객들에게 더 좋은 것인지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건축에 문외한인 도서관 자원봉사자 몇 명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인지 걱정이 되기도 했지요.

그러나 걱정도 잠시, 공사가 시작되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선뜻 와주셨습니다. 오셔서 같이 책장이며 책들을 실어 나르고, 치우고, 청소하고, 공사 후에 다시 복귀시키는 일들을 했습니다. 봉사자들끼리 하기엔 버겁고 큰 일 이었고 힘이 들었습니다. 하지만 봉사자들끼리 서로 모여서 더 가까워지고 같이 일하는 즐거움과 소속감을 갖게 해주었습니다. 도서관 봉사자들이 서로 더 끈끈해지고 친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. 혼자는 어렵지만 같이 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게 되었고, 같이 일손을 보태는 빈번한 시간을 거쳐 구성원들의 친밀감이 증가했습니다. 무엇보다도 마루 시공 후에 이용객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'옳은 선택이었구나.'하는 뿌듯함도 느끼게 되었습니다.

또한 호반두드림도서관의 용기 있는 시도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습니다. 바닥시공 전에 2주의 기간을 가져 좌식 도서관으로 변화함을 공지하였는데, 모두들 필요성에 공감해주셨습니다. 주요 운영진 몇 명의 시도로 긴급지원119사업이 시작되자, 적극적으로 시간을 내어 필요한 일손을 도와주셨습니다. 공사 후 다시 2주의 기간을 가져 공사 완료에 대한 공지를 했는데, 입주민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었습니다.

▲ 마루시공 전

▲ 마루시공 후

이용자들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다고, 공간도 더 넓어진 것 같고 더 편안한 느낌이라고 하십니다. 단지 내 도서관은 거의 유아동과 초등학생들 그리고 일반인들이 주로 찾는 곳입니다. 마루 시공을 하고 나니, 더 많은 아이들이 찾아와서 마루에 엎드리거나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는 등 훨씬 편안한 자세로 더 많은 시간을 도서관에서 지내고 있습니다. 도서관이 훨씬 책 읽기 편한 공간으로 변화한 것이지요. 가끔은 아주 어린 아기들이 와서 마루 위를 마음껏 기어 다니는 모습을 보면 절로 미소를 짓게 됩니다.

호반두드림도서관의 2018년은 어떠한가요?

새해에는 호반두드림도서관에 아기들을 위한 영유아 도서를 더 많이 구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구입할 계획도 있습니다. 그리고 매 년 해오던 동네 책잔치나 개관기념 벼룩시장, 그리고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올빼미의 밤이나 독서골든벨은 매우 인기가 있어서 많은 아이들이 기다리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. **아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도서관과 접할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.**

작은도서관 활동가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?

봉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스스로 하는 것이지요. 억지로 시킬 수 없기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. **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옆에 같이 걸어가는 봉사자들과 좋은 만남도 나누시고 서로 힘이 되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.**